‘제대로 된 전북만의 자치권 갖자’

전북도-전북 국회의원 조찬간담회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 추진 등 현안 행정력 집중

“전북금융중심지, 새로운 전북 발전 위해 필요” 공감대

전북도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 국회의원들과 6월 조찬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방법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추진’,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개정’, ‘전북금융중심지 지정’,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글로컬대학30 공모대응’, ‘2024년 국가예산 반영’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전북 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 추진과 관련,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제대로 된 전북만의 자치권을 갖자는 고민에서 회동 안건으로 논의됐다.

전북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개정안을 추진중으로, 의원들은 보다 촘촘하게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하고 명확한 규정을 통해 이양받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자는데 공감했다.

또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전북금융중심지가 새로운 전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비롯해 국내외 9개 금융사무소가 전북에 유치돼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 등 금융산업 집적도시라는 점이 강조됐다.

의원들은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전북 금융중심지가 지역 간 경쟁이 아닌 금융중심지 입지 특징을 살린 국제 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2024년 국가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부처 단계에서 반영 상황을 점검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현안 모두가 전라북도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다”며, “의원들께서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사업진행과 예산반영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논의된 안건에 대해 추진 가능한 것은 실무적 논의를 통해 조속히 진행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인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1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5일 전북도의회 주관 ‘제10대 전반기 제8차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전주에서 열렸다.

새만금잼버리 안전대책 국비투입 건의안 협의

전북도의회 주관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서

김정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15일 전북도의회가 주관한 제10대 전반기 제8차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박환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정기회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대책 관련 국비예산 투입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전문위원 등 지방의회 관계자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박주용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에 이어 안건협의 및 토론과 최명희문학관·전주부채문화관 등 현장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의미있는 논의와 협의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폭넓은 분석과 대안 제시, 더 나아가 지방의회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의원에 따르면 이날 정기회는 “2023 세계잼버리 야영장 부지는 준설토를 이용하여 매립함에 따라 강우 시 배수 불량이 발생할 수 있고, 계절 특성에 따라 폭염 발생 등 안전사고 대비 필요성이 높아 2023 세계잼버리 국비 투입 건의 등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4건의 안건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17개 광역시·도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사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된 안건을 의장협의회에 상정한다.

이날 협의된 안건은 국제행사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안전대책 관련 국비투입 건의안(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제출), 효율적 산불 예방·대응을 위한 산불 대응체계 개선 건의안(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제출),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 확대 개편 촉구 건의안(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제출), 모방 자살 방지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자치법규 개정 촉구 건의안(서울특별시 운영위원장 제출)으로, 이들 안건은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의회 정례회 폐회… 회계연도 결산 승인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9건(의원발의 9건), 동의안 2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환경오염 사고 해결과 주민을 위한 엄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일본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반대 결의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 14건, 기획행정위원회 문화관광 캐릭터 ‘마룡이’의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등 190건, 보건복지위원회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개선 등 189건, 산업건설위원회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등 171건, 총 564건을 시정요구했다.

최종오 의장은 “25일간의 긴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면서, “오는 7월 제9대 익산시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는 익산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순덕 의원은 팔봉군경묘지 및 공설묘지를 찾는 추모객과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을 제안했으며, 송영자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이종현 의원은 쿠팡에 이어 코스트코까지 ‘유통공룡’ 입점 위한 행정력에 집중해달라고 했고, 조규대 의원은 망성면 균형발전을 위한 체육공원 건립을 촉구했다. 소길영 의원은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으며, 한동연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관련 익산시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본회의 후에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익산경찰서에서 ‘2023년 치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공동체 치안 강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도내 학생 상담 활성화 추진 필요”

김정기 도의원,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군)이 학교폭력 등 다양한 상황적·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전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학생상담 활성화 지원계획 매년 수립,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구성·운영, 학생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 적용, 학생상담담당자 교육 지원, 실태조사 및 연구 진행, 협약체계 구축 등 교육감에게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정기 의원은 지난 2월부터 본 조례 제정을 위해 학교에서 상담수업을 진행하는 전문상담교사 및 시군 위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상담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등 학생상담담당자들과 도 교육청 담당 장학관과 함께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의견을 청취했다.

학생상담담당자들은 주로 학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상담실 설치와 운영 기준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으며, 상담 활성화를 위한 상담지원위원회와 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담활동의 최전선에서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상담담당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했으며, 이번 조례에 담지 못한 상담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요소들은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3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가결 됐으며,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행안부, ‘잼버리 재난상황 가정’ 태풍 내습 대비 합통 토론훈련

행정안전부는 15일 오후 2시 태풍 내습 대비 관계기관 합동 토론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의 발생 시기와 강도 등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관별 대비 태세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안부를 비롯해 20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부안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개최되는 기간 초강력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해 저수지 붕괴, 하천 범람, 산사태, 정전 등 복합적 재난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기상 상황이 전파되면 각 기관별로 대처계획과 대응상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강평한 후 보완하게 된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 대피 계획과 함께 반지하 주택 등 지하공간 거주 취약세대에 대한 일대일(1:1) 담당자 매칭 방안을 발표한다.

기관 간 협업 능력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훈련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가 돌발 상황을 부여하면 기관별로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뉴시스